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 첫 주 대비 시청량 2,914% 상승하며 화려한 피날레! 올해 최고 화제작 감사 친필 메시지 공개!

2023. 12. 27.





- 화려한 피날레! 종영 후에도 계속되는 화제!
- 최종화 공개 주말, 첫 주 대비 시청량 2,914% 상승!
- 5주 연속 쿠팡플레이 인기작 부동의 1위!
- 역대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 재생수, 일간 순시청자수 1위!
- 인생 캐릭터 만남 임시완의 열연,
- 중독성 총청도 사투리 열풍까지!

지난 22일(금) 최종화를 공개한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막을 내린 가운데, 이명우 감독과 배우들이 친필 메시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청자를 웃기고 울린 올해 최고의 작품 <소년시대>
도장깨기 복수로 짜릿한 카타르시스 선사하며 완벽한 피날레 장식!**

지난 22일(금) 공개된 <소년시대>의 마지막 9, 10화는 자니윤 '영호'(김윤배)부터 아산 백호 '경태'(이시우)까지 부여놓고 도장깨기에 나선 '병태'(임시완)의 기막힌 복수극이 펼쳐졌다.

9화에서는 우연히 프로 레슬링 경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병태'가 청룡 복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호랑이(아산 백호)를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싸움 일타 강사 '지영'(이선빈)의 혹독한 트레이닝과 인물별 맞춤형 전략에 힘입어 '병태'는 자신과 친구들을 괴롭히던 이들을 한 명씩 응징하는 데 성공,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10화에서는 청룡에 대한 흥흥한 소문이 온 동네 퍼지자 여유만만하던 '경태'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며 청룡 찾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 긴장감을 안겼다. 이에 '병태'는 '호석'(이상진)을 비롯한 찌질이 패거리와 단합해 기상천외한 작전을 짜고, '경태'와 정면 승부를 펼쳐 마지막까지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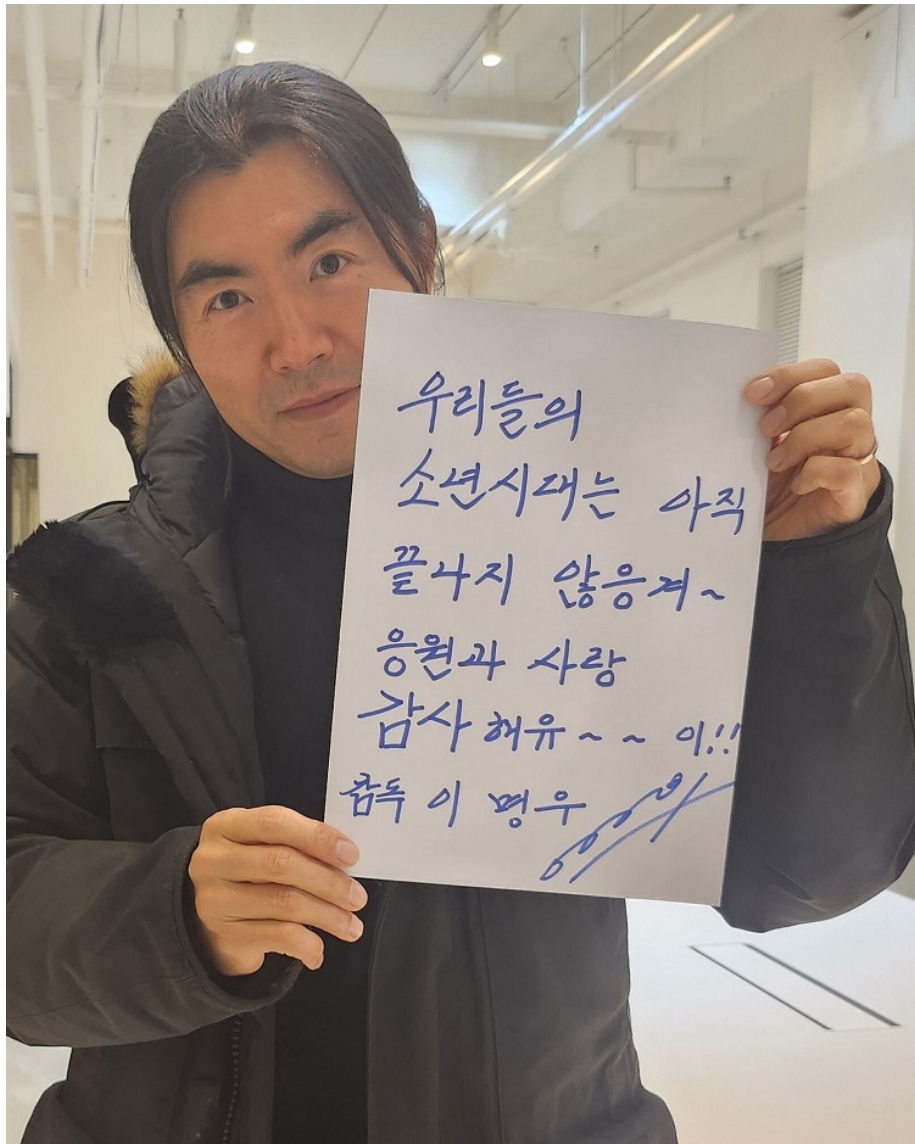
11월 24일(금) 첫 공개 이후 5주 연속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 쿠팡플레이 내 30만 건에 육박하는 리뷰 수와 4.5점의 높은 평점을 비롯해 첫 주 대비 전체 시청량 2,914% 수직 상승, 네이버 '많이 찾는 드라마' 1위, 본편 하이라이트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임시완 12월 배우 브랜드 평판 1위 등 수많은 기록을 달성한 <소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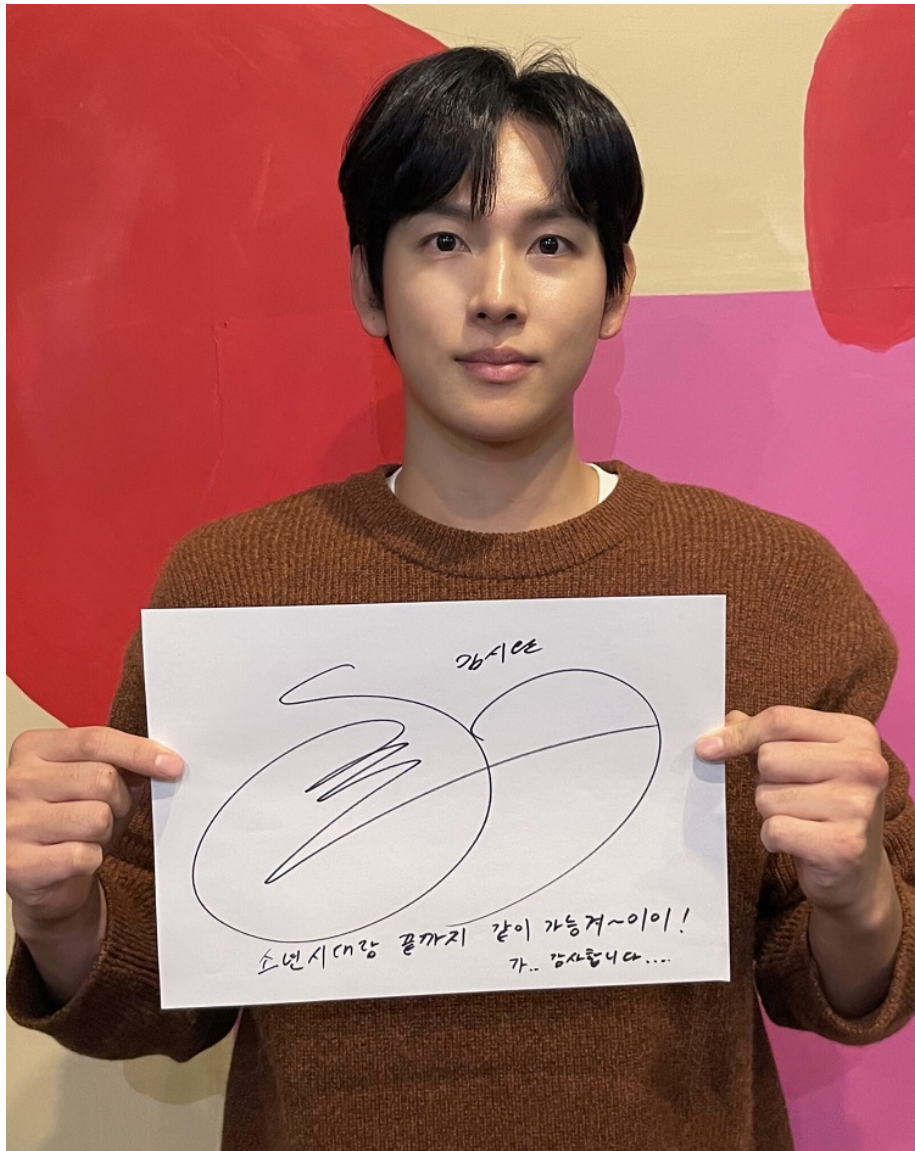
<열혈사제><어느 날>을 선보인 흥행 메이커 이명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순도 100% 웃음과 신박한 스토리,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버라이어티한 볼거리 등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중독성 있는 총칭도 사투리 대사가 시청자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는 등 올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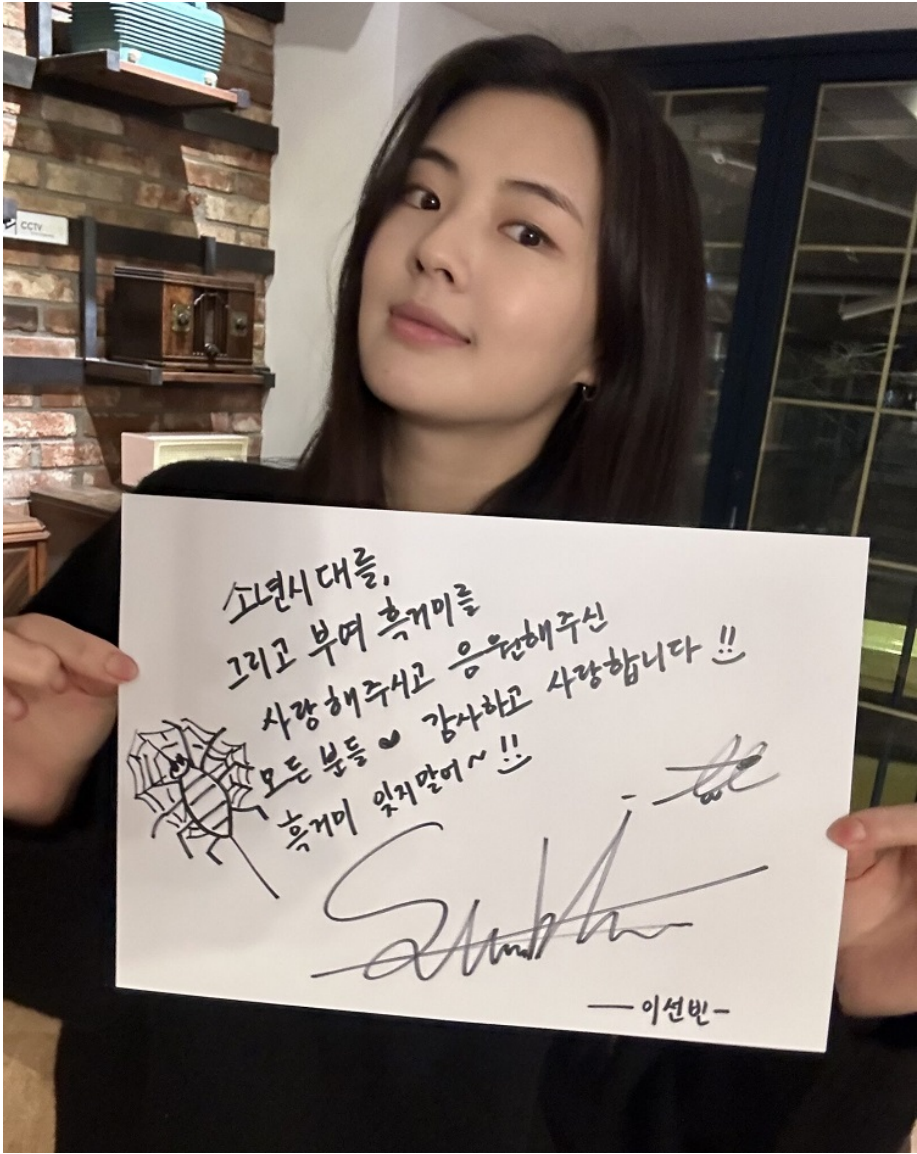
특히 <소년시대>를 통해 첫 코믹 연기에 도전, '병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한 임시완의 물오른 연기력은 대중으로부터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찬사와 함께 놀라움을 안겼다. 여기에 걸크러시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준 이선빈,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한 신예 이시우, 국민 첫사랑 계보를 이어간 강혜원, 날 것 같은 생생한 연기를 펼친 부여놓고 6인방까지. 청춘 배우들의 매력적인 연기 앙상블은 인기를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아악 안돼 <소년시대 > 못 잃어 "(md2e****), "지발 부탁한다 이 조합으로다가 <소년시대 2> 맹그러 주라 "(ebb9r****), "시즌 2 내줄겨? 안 내줄겨? 얼른 발표하랑게~"(mi8w****), "시즌 2 부탁허유~ 안 그럼 호미 들고 갈 거유~"(ct4k****) 등 종영 후에도 '소년시대 앓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프로덕션 총괄 안혜연 CP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소년시대 >의 시즌 2 제작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라고 밝혀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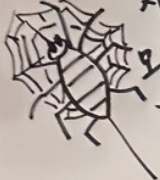
**이명우 감독부터 '부여즈', '농고즈'까지 청춘 배우 총출동
친필 메시지로 직접 전하는 종영 기념 감사 인사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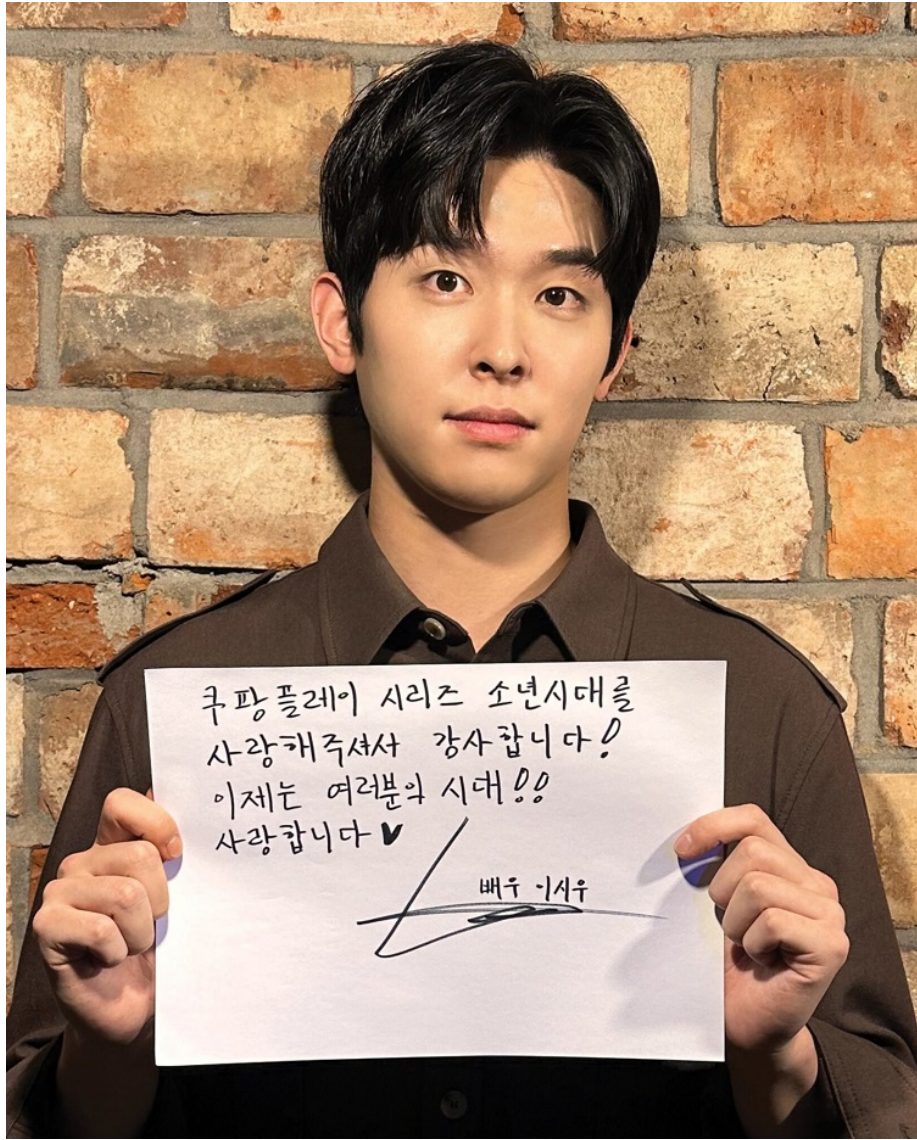


고연시대들,
그리고 부여 흙기미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흙기미 잊지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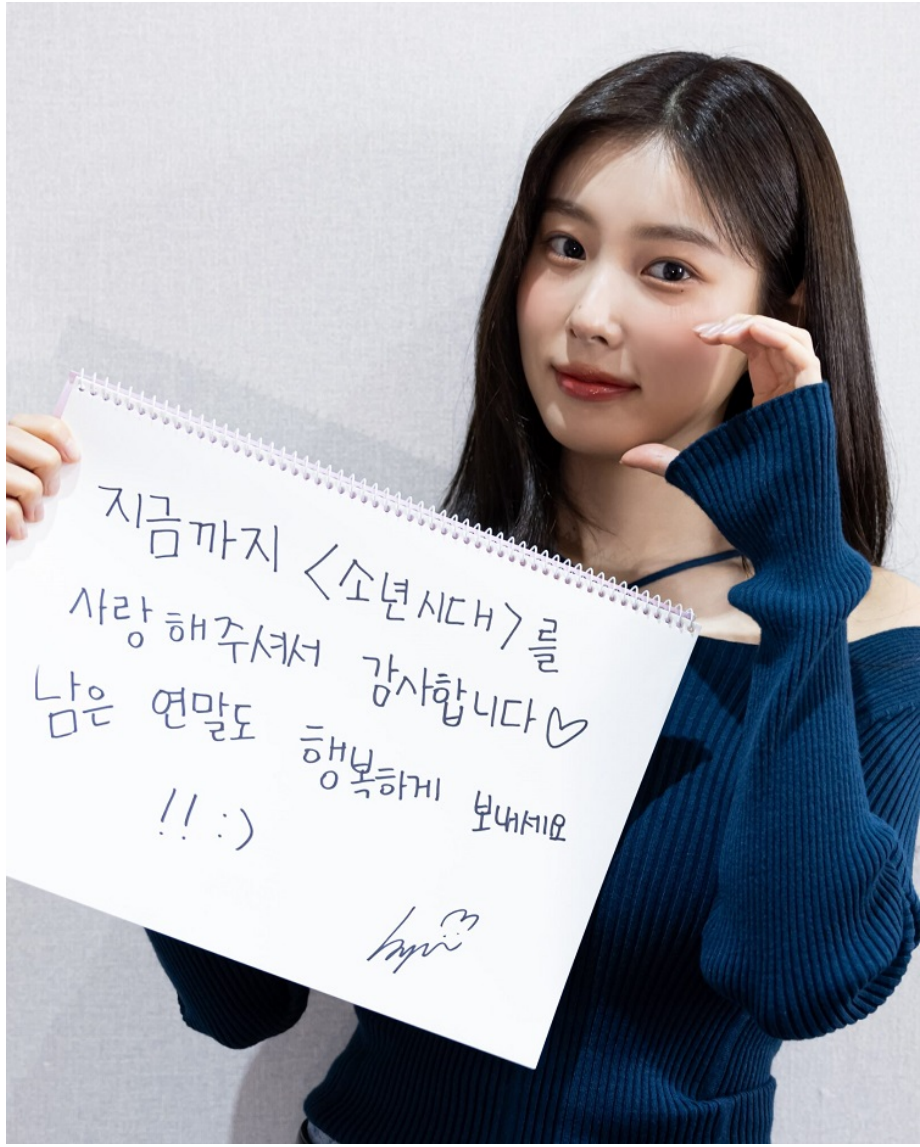
[Handwritten signature]

—이선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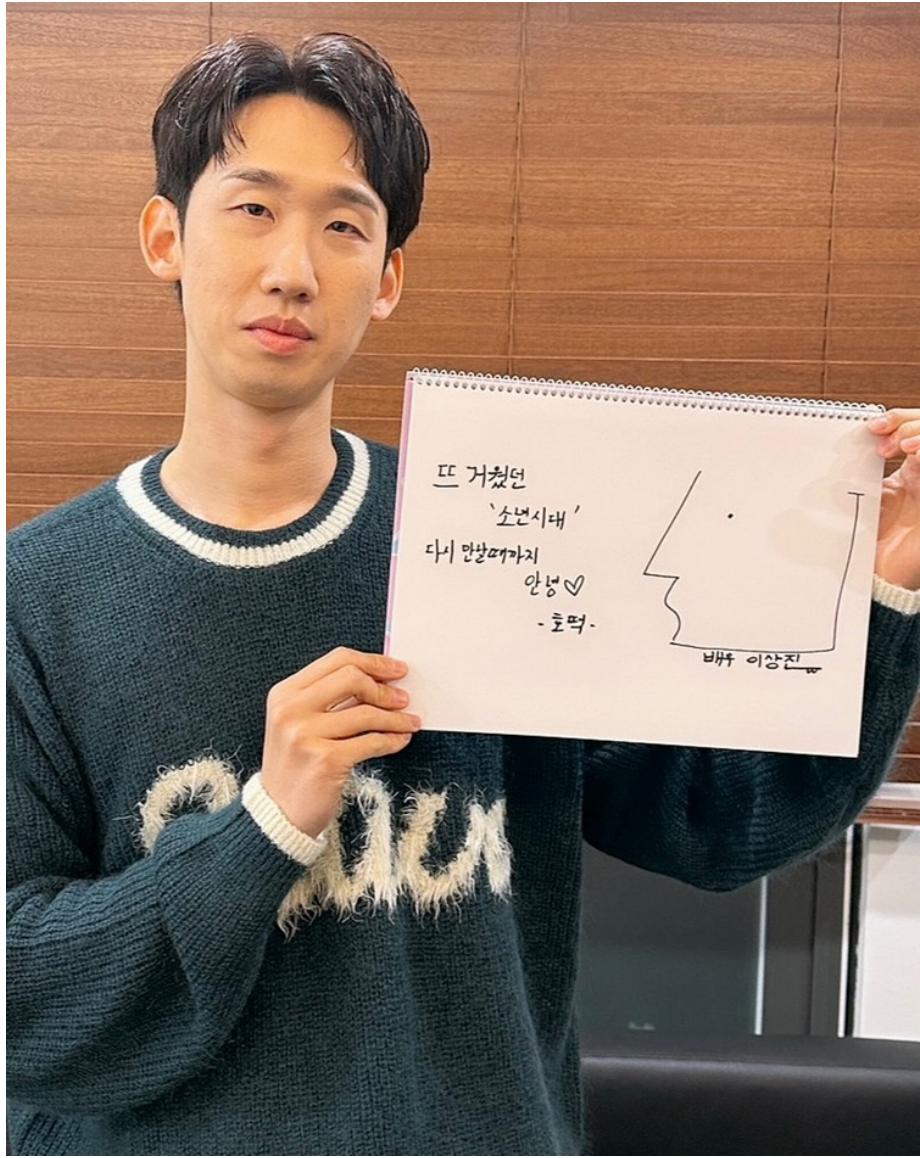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
사랑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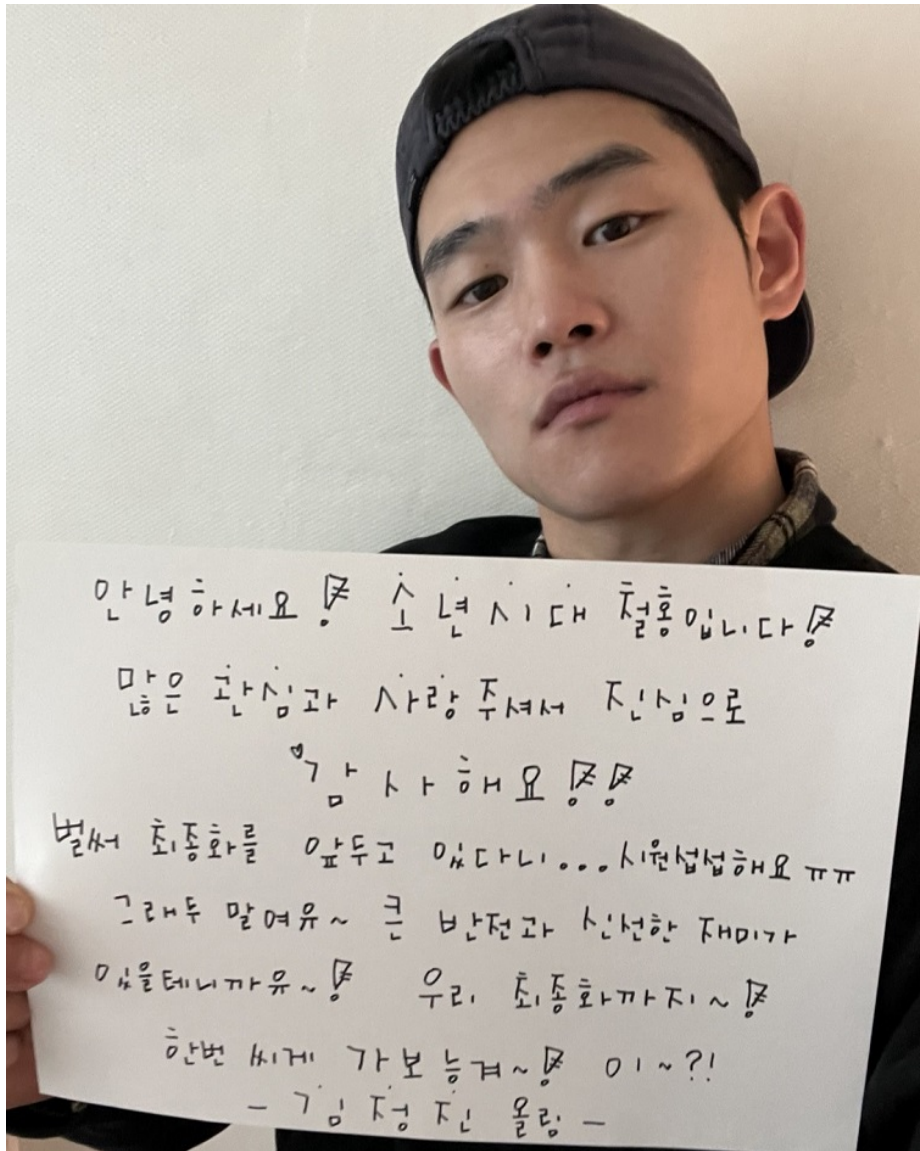
배우 이서우



지금까지 <소년시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연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 :)

hyun





안녕하세요! 소년시대 철학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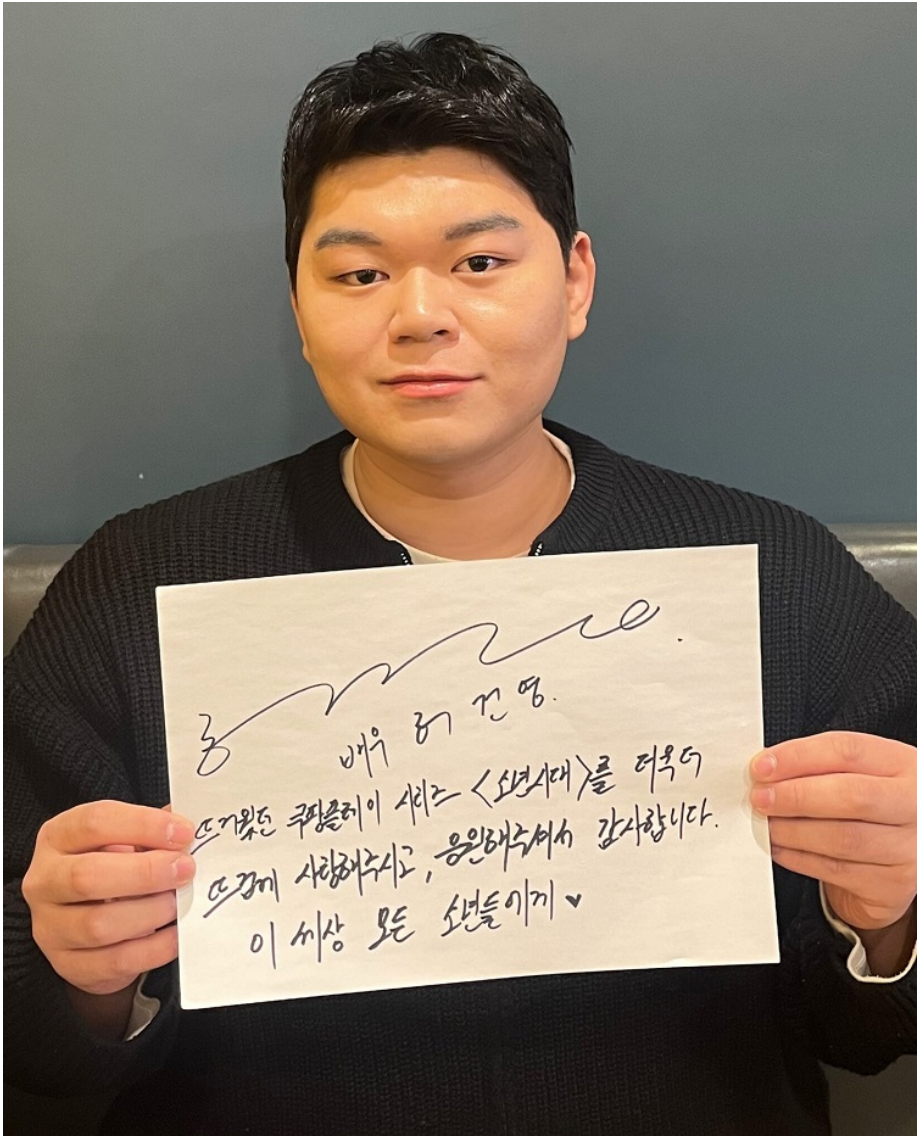
벌써 초종화를 앞두고 있다니... 시원섭섭해요ㅠㅠ

그래도 말여유~ 큰 반전과 신기한 재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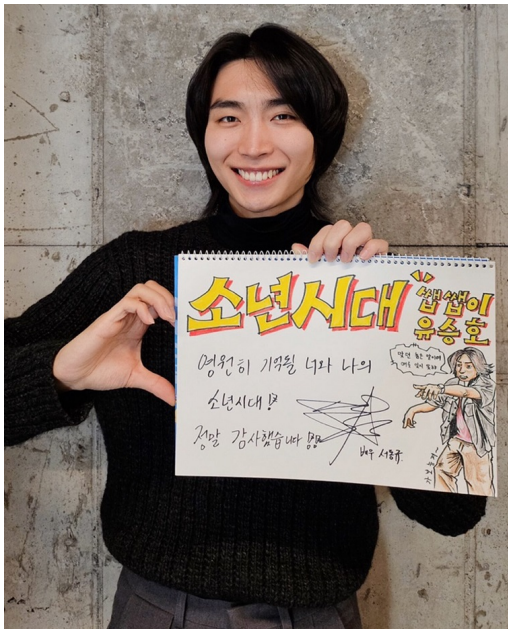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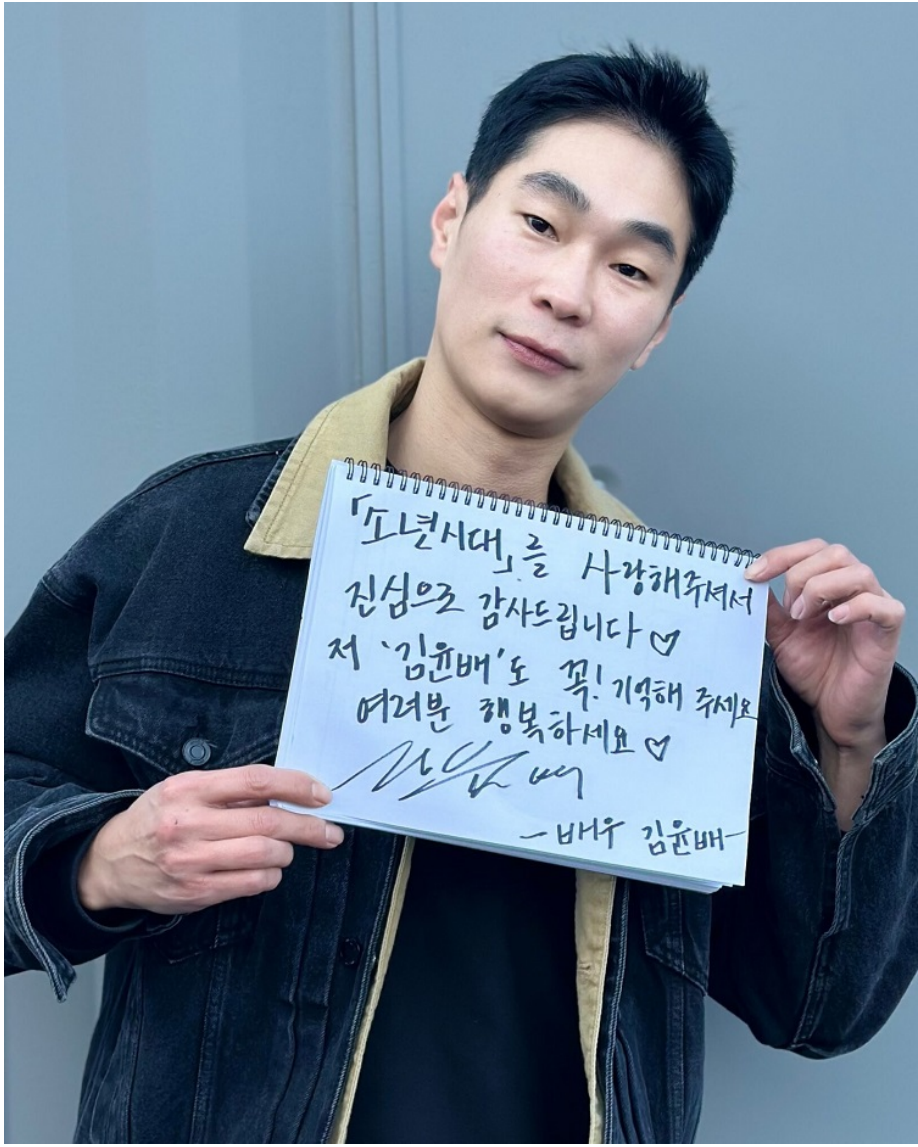
있을테니까요~! 우리 초종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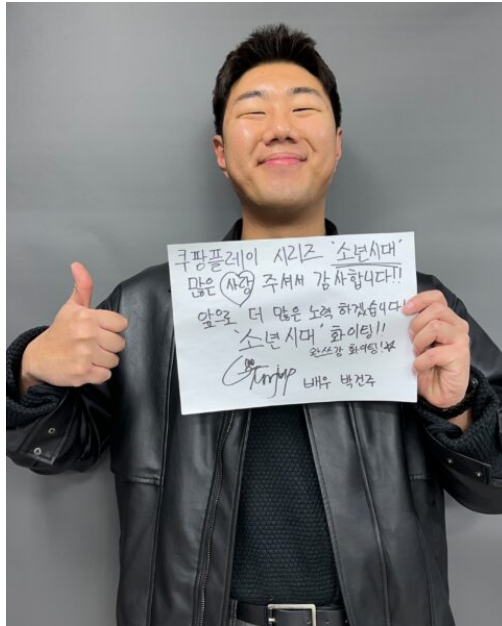
한번 시계 가보 능력~! 이~?!

- 기성정진 올림 -



공
배우 러 진 명.
뜨거운 쿠팡이 세리 <외연대>를 더욱
뜨겁게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소년들이기 ♡





왼쪽 위부터 이명우 감독, 임시완, 이선빈, 이시우, 강혜원, 이상진, 김정진, 허건영, 김윤배, 서동규, 박건주

마지막까지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준 시청자들에게 <소년시대>의 주역들이 친필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전해 눈길을 끈다.

먼저, <소년시대>를 탄생시킨 이명우 감독은 “우리들의 소년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음겨~ 응원과 사랑 감사해유~”라며 센스 있는 인사를 전했다. 온양 찌질이 ‘병태’로 최고의 열연을 펼친 임시완은 “소년시대랑 끝까지 같이 가능겨~이이! 가..감사합니다..”라며 캐릭터에 완벽하게 스며든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여기에 부여 흑거미 ‘지영’ 역의 이선빈은 “소년시대를, 그리고 부여 흑거미를 사랑해 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흑거미 잊지 말어~”, 아산 백호 ‘경태’ 역의 이시우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 사랑합니다♥”, 부여의 소피 마르소 ‘선화’ 역의 강혜원은 “지금까지 <소년시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연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극을 풍성하게 채워준 ‘농고즈’ 이상진, 김정진, 허건영, 김윤배, 서동규, 박건주 등 신예 배우들 역시 진심이 담긴 메시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에 화답했다.

1989년 충청남도, 안 맞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인 온양 찌질이 병태가 하루아침에 부여 짱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다이내믹 청춘 활극 <소년시대> 는 쿠팡플레이를 통해 전 회차 만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